

이달의 보험영업 전략브리핑

2026년 2월

강사: 장신영

본 과정은 영업상담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의 자료는 고객에게 배포될 수 없으며, 보험상품 판매시에는 해당 회사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바랍니다.

CONTENTS

01 | 2026년 2월 보험뉴스

02 | 2월 영업 전략

03 | 2월 활동 계획

보험 판매수수료를 분급체제로 개편하여 소비자가 장기간, 세심한 보험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1.14일)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 확정
 - ① 최대 7년동안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여 계약 유지율 제고
-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률을 적용하여 규제차익 해소
 - ②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 의무 신설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
 - ③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만 판매수수료를 집행하고, 사업비 부가수준 적정성 등 상품 전반을 보험사 상품위원회에서 자율 관리
- ◆ 판매수수료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만큼, 현장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 시행

I. 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1.14일 정례회의에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보험 뉴스 – 보험 판매 수수료 분급 보도자료

II.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내용

이번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은 크게 세 가지 목표 하에 추진되었다. 먼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①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고,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해 ②보험계약자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것이다. ③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것도 정책 목표이다.

①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한 판매수수료 분급 유도

국내 보험계약 유지율¹⁾은 2년 경과 시점 약 70%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판매수수료 대부분이 先知급되어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이 부족하고, 실적 달성 조건부로 지급되는 고액의 정착 지원금²⁾ 등이 잡은 계약 승환(갈아타기)을 유발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 * 1) 25개월차 보험계약유지율(%): (韓) 69.2, (싱가포르) 96.5 (日) 90.9, (대만) 90.0, (美) 89.4
- 2) 보험설계사 이직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실적 미달성시 지원금 환수 → 지원금 환수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부당계약 진행 조장

이에 계약 초기 대부분 집행되는 판매수수료를 분급하도록 하였다.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①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보험계약 유지시에만 지급)를 신설하여 보험설계사들의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로 지급*한다. 또한 ②계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여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가 수령할 수 있는 수수료도 증가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 설계사가 이직 또는 해촉될 경우 해당계약을 유지관리할 설계사를 신규로 지정하고, 유지관리 서비스를 수행한 설계사에게 유지관리수수료 지급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보험 뉴스 – 사회 보장 4대 보험료 인상

D 서울경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9.5%로 인상...소득대체율은 43%로 올라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박신원 기자 · 2025. 12. 31. 09:02

구분	2025년 요율	2026년 변경 요율	비고
국민연금	9.0%	9.5% (↑0.5%p)	28년 만의 인상 시작 (2033년 13% 목표)
건강보험	7.09%	7.19% (↑0.1%p)	직장인 평균 보험료 약 2,235원 인상
장기요양	0.9182%	0.9448% (↑0.0266%p)	건강보험료 대비 약 13.14% 수준
고용보험	1.8%	1.8% (동결)	실업급여 계정 기준
산재보험	1.47%	1.47% (동결)	사업종류별 평균 요율

2026년 2월 핵심 영업 전략

- **치매 간병보험 재가 / 시설 생활비 플랜 활성화**
(보험사 손해율 증가로 판매 중지 추세가 보임)
- **초기치매에 필요한 레킴비 보장 활성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치료 효과 우수)
- **5세대 실손 보험 출시 예정에 따른 수술비, 치료비 세일즈**
- **7년납 환급률 100% 되는 20년납 종신보험 (수수료는 20년납 기준)**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젊은 세대 연금보험 관심 폭증**
-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관심도가 올라간 시기 연금저축 보험 판매**
- **매일 같이 화재로 인한 재산/인명 손해 (화재보험 가입으로 경제적 손실 방어)**
- **법인 단체보험 판매로 인한 신규 시장 개발**

2026년 현재 100세가 넘는 인원은 몇 명?

2026년 2월 현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5년 12월 말 집계 기준)를 바탕으로 파악된 대한민국의 100세 이상 인구는 **총 8,726명**입니다.

100세 이상 인구 현황 (2025년 말 기준)

구분	인구 수	비중
전체	8,726명	100%
남성	1,441명	약 16.5%
여성	7,285명	약 83.5%

출처: 행정안전부

장수는 축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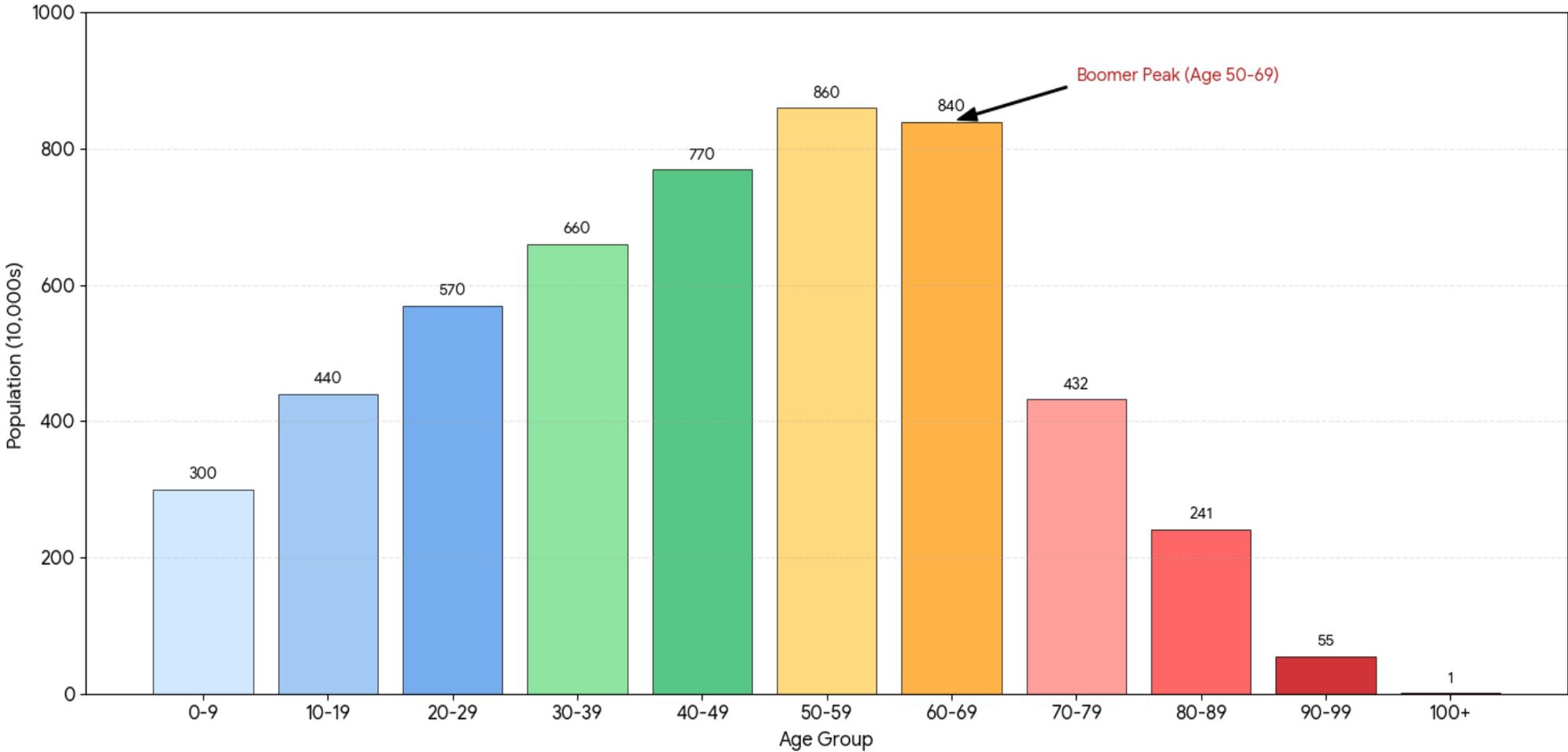
준비 없는 장수는 재앙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VS 2020년대 비교

구분	베이비부머 세대 (1960년 기준)	현재 대한민국 (2026년 추계)	변화 정도
합계출산율(TFR)	약 6.0명	약 0.8 ~ 0.9명	약 1/7 수준으로 급감
연간 출생아 수	약 108만 명	약 25만 명대	1/4 이하로 감소
중위연령	19.0세	47.3세	사회가 28세 이상 늙음
65세 이상 인구 비중	약 2.9%	21.56% (초고령사회)	7배 이상 증가
인구 구조 형태	피라미드형 (다산소사)	역피라미드형 (소산다사)	완전한 구조 역전
기대 수명	52.4세	84.7세	32년 이상 수명 연장

2026년 대한민국 인구 구조

2026 South Korea Population Structure (10-Year Intervals)



[자료 출처: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인구감소

AI의존도 상승

1차 산업의 붕괴 - 젊은 세대들은 IT, AI에는 익숙. 생산인구 감소

다민족 국가

젊은 세대는 힘듭니다. 우리를 부양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개인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100세 시대, 내 삶을 스스로 지키는 솔루션

이제는 국가와 자녀가 나를 책임져 주는 시대는 끝나 갑니다

1. [소득 전략] '3층 연금'을 넘어선 '4층 연금 시스템' 구축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고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상황에서, 소득의 공백기를 메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1층(국민연금): 기본 생활비 (28년 만의 요율 인상을 보장 강화의 신호로 해석)

2층(퇴직연금): 안정적 생활비 (20년 이상 장기 수령 시 50% 세액 감면 혜택 활용)

3층(개인연금): 여유 생활비 (연금소득세율 3% 인하 등 저율 과세 혜택 극대화)

4층(주택연금/자산): 비상 생활비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여 최후의 보루로 활용)

이제는 국가와 자녀가 나를 책임져 주는 시대는 끝나 갑니다

2. [지출 전략] '사망' 보장에서 '간병·케어' 보장으로의 전환

80~90대 인구가 급증하는 시대에는 '언제 죽느냐'보다 '어떻게 아프며 사느냐'가 더 큰 리스크입니다.

- **간병인/재가급여 강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간병인 지원 일당과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 한도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5세대 실손 및 대체 특약:** 오르는 실손 보험료에 대비해, 핵심 진단비와 수술비 위주로 보장을 정교하게 리모델링하여 고정 지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우리에게는 보험 세일즈의 기회입니다

내 삶을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 1-1 [연금 저축 준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801호(2025.12.31)

판매인교육용/고객제시 불가

01

상품안내

연금저축

(무)IBK하이브리드연금저축보험_2601

가입후 5년 이내 확정이율 3.5% 적용

연말정산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 알아보세요!



상품 주요 특징



매월 5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99만원 세액공제 혜택 OK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기준))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의 경우 최대 792천원 세액공제 가능



연복리로 붙어가는 적립액! 가입후 5년 이내 확정이율 3.5% 적용

5년 이후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 적용



경쟁력 있는 공시이율

2025년 12월 기준
IBK연금보험 2.40%



출처: IBK연금 보험 소식지

[연금 저축 장점]

- 노후자금 준비
- 연말정산 세액 공제

하나의 상품으로
연금준비 + 세금 혜택

내 삶을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 1-2 [변액 연금 준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판매인 교육용-고객배포불가

무배당 하나뿐인 변액연금보험

시장이 흔들려도
하나뿐인 변액연금은 흔들리지 않아요

월 1백만원 가입시 종신까지 최소 연 1,571만원 연금 수령 보장
월 50만원 가입시 종신까지 최소 연 785만원 연금 수령 보장

[가입기준: 40세남여, 적립형, 10년납, 월납, 65세연금개시]



연금개시 전/후 피보험자 사망시 최저사망적립액 보장!!

- 연금개시전: 기납입보험료를 납입시점부터 연단리 4%로 사망시점까지 부리한 금액 지급
- 연금개시후: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기준금액-기납입연금액 지급

- ▶ 연금기준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최저연금(종신액)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
- ▶ 최저연금기준금액: 기존 기본보험료 및 기존 중기납입보험료를 납입시점 기준의 원리를 10년납 경우에는 납입시점이 아닌 해당 차액 불계약해당일부터 보험료로 적용하여 정리된 기본금액
- ▶ 최저연금적립액 보증비율: 예년 특별계약 계약자적립액의 2.50%(가입사본의 종신까지 차감)
- ▶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율: 예년 특별계약 계약자적립액의 0.10%(가입사본의 종신까지 차감)
- ▶ 중도해지시 또는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 사망 시 최저연금지급액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 ▶ 중도해지시 최저사망적립액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 ▶ 해약금(보험금)은 특별계약 수직률에 따라 10년 만료시, 중도해지시 특별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환 금액에(해약공제액)를 차감하므로 해약금(보험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위상률은 보험료 중 위상료(보험료, 계약자적립액)를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한 후 특별계약(원리)으로 투입(해당 계약 투입금액)하여 운영되고, 특별계약(원리)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특별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보증비율 등이 차감됩니다.
-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원금을 통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세제(1)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년 연금액 예시

[가입기준: 남여공통, 적립형, 10년납, 월납 50만원, 투자수익률 3.75% 가정시, 세전 (단위: 원)]

가입나이/개시나이	60세개시	65세개시	70세개시
40세	5,707,500	7,857,528	9,662,736
45세	4,506,240	6,221,172	8,434,236
50세	-	4,911,804	6,677,772

(무)IBK연금액평생보증받는 변액연금보험_2601

최대 20년동안 연단리 8%보증
이후 연단리 5%보증



상품 주요 특징

첫째	둘째	셋째
8.0% 보증	사망시 적립액 지급	30세부터 연금개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일로부터 20년이라는 계약해당일의 원리: 연단리 8%보증 ▶ 20년이라는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금개시나 이 계약해당일까지: 연단리 5%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사망계약자 적립액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형 미보증형은 46세부터 가능

예상 연금액 예시

※ 기준: 1형 보증형, 남자, 월납100만원, 10년납, 연금개시 65세, 투자수익률 2.50%가정, '25.12월 공시이율 2.37%적용

구분	35세	40세	45세
총 납입보험료	120,000,000원		
연금기준금액	324,400,000원	294,400,000원	264,400,000원
연금연액	18,906,032원	16,050,688원	13,296,676원
100세까지 연금수령 누계	680,617,152원	577,824,768원	478,680,336원

※ 세전기준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보험차익에 대한 이차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보증형인 경우: 최저사망계약자적립액 및 손해배당 종신연금 / 미보증형인 경우: 최저사망계약자적립액)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보호 한도는 해약한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예대 보호상용과 합산)이며,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하여 1인당 1억원까지입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적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출처: 하나생명, IBK연금 보험 소식지

최저보증 단리 7,8% 보험사 변액연금 IBK연금, KDB생명, 하나생명 등

내 삶을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 두번째 방법 [재가/시설 생활비 준비]

신청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자

급여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장기요양 인정 등급 및 상태

등급	상태	인정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95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75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60점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	45~51점

내 삶을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 두번째 방법 [재가/시설 생활비 준비]

구분	질병명칭	질병코드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2. 혈관성 치매	F01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4. 상세불명의 치매	F03
	5. 알츠하이머병	G30
	6. 지주막하출혈	I60
	7. 뇌내출혈	I61
	8.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9. 뇌경색증	I63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11.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13. 기타 뇌혈관 질환	I67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15.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16. 파킨슨병	G20
	17. 이차성 파킨슨증	G21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20. 중풍후유증	U23.4
	21. 진전: 상세 불명의 떨림	R23.6

◆ **65세 미만자** 라도 왼쪽 노인성질병 21가지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음

◆ 왼쪽 약관 6번부터 15번까지는 젊은층도 발병할 수 있고 자주 발병하는 질병

내 삶을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 두번째 방법 [재가/시설 생활비 준비]

[2026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집에서 받는 서비스)

2026년에는 1·2등급의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파격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등급	월 한도액 (국가지원+본인부담)	일반 본인부담금 (15%)	감경 대상자 (6~9%)
1등급	2,512,900원	376,935원	150,774~226,161원
2등급	2,331,200원	349,680원	139,872~209,808원
3등급	1,528,200원	229,230원	91,692~137,538원
4등급	1,409,700원	211,455원	84,582~126,873원
5등급	1,208,900원	181,335원	72,534~108,801원
인지지원	676,320원	101,448원	40,579~60,868원

출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감경대상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사용할때 국가에서 자기부담금을 깎아주는 제도 (소득하위 25-50% - 40% 경감, 소득 하위 25% 이하 - 60% 경감)

내 삶을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 두번째 방법 [재가/시설 생활비 준비]

2.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시)

요양원은 하루당 수가로 계산되며, 국가가 80%를 지원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합니다. (식비 등 비급여 별도)

등급	1일 급여 수가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20%)	비고
1등급	93,070원	558,420원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료 별도
2등급	86,340원	518,040원	통상 본인부담 50~70만 원 선
3~5등급	81,540원	489,240원	시설 입소 시 등급별 차등

출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치매간병 재가 / 시설 보장 비교표 - 생명보험

보험사	ABL생명	DB생명 백년친구 당신 곁에 치매간병 보험 (1종)	교보생명 치매간병안심 보험	동양생명 우리원하는 치매간병보험	한화생명 케어백간병플러스 보험 (표준제)	삼성생명 간편 웰에이징 건강보험	흥국생명 치매담은 시니어 보장보험	미래에셋생명 M-케어 치매간병 보험
재가	1-5등급 50만원	1-5등급 50만원	1-5등급 30만원	1-5등급 50만원	1-5등급 50만원(납입기간 중) 1-5등급 70만원(납입기간 후)	1-5등급 50만원	1-5등급 50만원	1-5등급 50만원
시설	1-5등급 50만원	1-5등급 50만원	1-4등급 30만원	1-5등급 50만원	1-5등급 50만원(납입기간 중) 1-5등급 70만원(납입기간 후)	1-5등급 50만원	1-5등급 50만원	1-5등급 50만원
유형	무해지 저해지 없음	저해지	저해지	저해지	저해지	저해지	저해지	무해지
만기	100세	100세	종신	110세	주계약 110세 특약 100세	100세	종신	100세
면책기간	90일	90일	90일	90일	90일	90일	90일	90일
20년차 환급률	36.8%	86.6%	69.2%	93.9%	118.2%	83.6%	80.8%	42.3%
보험료	145,310원	96,825원	62,483원	111,229원	237,610원	191,210원	109,992원 (표적치매약물허가지 료 보험료 205원)	111,178원
납입면제	1-5등급	1-5등급	암, 뇌출혈, 급 성심근경색	1-2등급	1-3등급	1-2등급	1-5등급	1-2등급

설계 기준 : 60세 여자 간편심사형 / 20년납

장기요양보장 미판매 회사: 하나생명 / KB라이프/신한라이프 / KDB생명(55세까지 가입)

고객 관리 = 지속적 관계**유지** = 믿음, 신뢰

예) 자동차, 정수기, 미용실, 세탁소

고객분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소개를 받을 수 있다

[고객관리 방법]

전화 / 문자 / 카톡 / 선물 / 우편 등

2월 활동 계획 - 대수의 법칙으로 승부를 걸자! 대량 문자 발송

좋은아침입니다~
한주가 새롭게 시작된 월요일 아침이
네요.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
됩니다.
안전운전하시구요,
행복한 한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보험 뉴스]

1.어린이 보험이 예전처럼 만15세
까지만 가입가능하게 바꾸라고 하네
요.

35세 이하 이신분들은 보험가입 서
두르세요~

<https://naver.me/xUt7iAiz>

2.운전자 보험은 20년 만기로만 판
매하라고 합니다.

<https://naver.me/5YwXx9Qg>

3.사망보장+목돈마련을 할 수있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는 이번달 정도
가 마지막 가입달이 될수 있을것

모두 보기

MMS
오전 9:28

안녕하세요 장신영 입니다.

이번 한주도 행복하고 즐거운일만 가
득한 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고의성이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 1억원 한도 내에서 배상해 드
리는 담보입니다.

자전거사고, 주택누수사고, 주차된
차량 밀다가 난사고 등
의외로 사용이 많이 되는 특약입니
다.

보험료는 월 1천원 내외입니다.

내가 가진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
임특약]이 있으신지 확인해 보세요
~^^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MMS
오전 8:43

항상 정도 영업에 힘써주세요~

청약서 자필서명

충분한 상품 설명

약관 및 청약서 부분 전달

감사합니다